

## 일제 문화정치 초엽 『宗教界諸名士講演集』(1922)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성화관(聖化觀) 분석

안수강 (백석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그리스도인의 성화의식 고취

1. 원익상의 '구원-성화'의 유기적 도식
2. 이기풍의 심정설(心情說)로서의 회개

### III. 그리스도인이 정립해야 할 모범적 신자상 촉구

1. 청지기 정신 담론
2. 김필수와 김창준의 이타정신 담론
3. 유경상과 김관식의 정의구현 담론

### IV. 숭선해야 할 과제들 제시

1. 강규찬의 맘몬이즘(mammonism) 타파 담론
2. 강두송의 성적 타락과 퇴폐문화 일소 담론
3. 박동완의 주초(酒草)문제 담론

### V. 나가는 말

---

• ABSTRACT •

---

An Analysis of the View of Christian Sanctification in *Jonggyogyoei Jemyeongsa Gangyeonjip(1922)* in the Early Era of Japanese Cultural Policy

Ahn, Su-Kang (Adjunct Prof. Beakseok Univ.)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view of Christian sanctification in *Jonggyogyoei Jemyeongsa Gangyeonjip(1922)* in the early era of Japanese cultural policy. Sanctification consists in a divine operation in the spirit, whereby the holy disposition is strengthened and its holy exercises are increased. I considered the prominent discourses on the Christian sanctification in this book as follows. Firstly, I treated with the organic interrelationship between salvation and sanctification from the viewpoint of cause and effect and Christian repentance on the basis of heart-warming theory and motivative ethics, focusing on Ik-Sang Won's "Human Responsibility" and Gi-Pung Lee's "New Man", and so on. Secondly, I concentrated on Christian stewardship, altruistic love for neighbours, achieving justice, focusing on Seok-Won Han's "Self-Awareness of Responsibility", Chang-Jun Kim's "The Greatest Model", Pil-Su Kim's "The Greatest Commemoration", Gyeong-Sang Yu's "Power of Justice", and so forth. Thirdly, I centered the point on practical implication of Christian sanctification such as destruction of mammonism, elimination of sexual sins and rotten culture, anti-drinking and anti-smoking, focusing on Gyu-Chan Kang's "Praise of Love", Du-Song Kang's "Women's Issue", Dong-Wan Park's "Consistent Sincerity".

**Key words:** Sanctification, Holy Life, *Jonggyogyoei Jemyeongsa Gangyeonjip*, Model Christian, Christian Ethics

---

##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에서는 일제 문화정치 초엽에 발행된 『宗教界諸名士講演集』(1922)<sup>1)</sup>에 함의된 그리스도인의 성화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민족이 거족적으로 봉기한 삼일독립운동은 일경의 잔혹한 무력진압으로 인해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군국주의를 표방한 일제의 국체와 종교 간 분쟁이자 국가와 한국교회 간 대립이었다는 점에서 양자가 대척점에 선 이중적 구도를 보여준 의미심장한 역사적 흐름이었다.<sup>2)</sup> 일제는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방을 체결한 후 10년에 걸쳐 무단정치로 일관했다. 1919년 거국적 삼일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을 경질조치하고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파송하여 문화정치의 중임을 수행하게 했다. 일제가 무단정치를 중단하고 문화정치를 표방한 근본적인 의도는 합방명분을 정당화하고,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및 문화를 종식시키며, 일제의 한국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기망적 술책이었다.<sup>3)</sup> 또한 한국인들의 독립사상을 단념시키고 내선일체를 옹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간교한 유희정책이었다.<sup>4)</sup> 일제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식민체제에 종속하기 위한 종교정책으로서 합방 당시 한국에 잠입한 일제의 조합교회(組合教會)들을 막후 조종하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했으며 조합교회로 흡수하고자 했다.<sup>5)</sup> 조합교회는 철저하게 일제의 어용 종교기관으로 일탈하여 합방을 동조했으며 조합교회 지도자 와다제

1)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京城: 活文社書店, 1922), 1-242.

2) 박응규, “교회와 국가관계를 중심으로 본 3·1운동과 한국교회,” 『생명과학』 23(2019), 186-187.

3) 길진경, 『영계 길선주』(서울: 종로서적, 1980), 283.

4) 안수강, “이필주(李弼柱)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지식’ 논증 분석: 그의 ‘참으로 자신을 알나(1922)를 중심으로,’” 『생명과학』 25(2019), 49.

5) 이영현, 『한국기독교사』(서울: 컨콜디아사, 1991), 166-167.

츠네요시(渡瀬常吉)는 정치영역에서의 합방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인류 동포주의 입장에서 같은 인류로서 교화되고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같은 국민으로 교화되는 것”<sup>6)</sup>이라고 표방했다. 조합교회는 동년 4월 14일 “時局運動宣言”을 선언함으로써 합방을 단행한 이래 일제가 인도주의 실천에 최선을 다했다고 선전했다. 또한 삼일독립운동을 악평하고 “시국 특별한 동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과 같은 사상, 행동을 교정하여 편협 무식한 신앙을 배제하고 게으르고 황폐한 공기를 일소하고 건전한 신앙을 육성하며 학생은 면학에, 농민·상인들은 부지런히 일할 것을 촉진한다.”<sup>7)</sup>라고 선동했다. 이처럼 식민사상을 이념으로 주입하기 위해 문화정치가 착수된 시대정황을 고려하면 1922년에 발행된 한국 최초의 설교문집으로 출간된 『宗教界諸名士講演集』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 설교문집은 한국기독교가 식민사상 세뇌정략에 항거하여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를 보전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 및 문서선교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삼일독립운동 이후 한국기독교는 이념개조라는 문화정치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신앙정체성을 수호하도록 선도하기 위해 책자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별히 이 설교문집에 나타난 성화관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식민사상 세뇌정략에 동요하지 않고 진정한 신자로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훈육하려는 교육적 의미를 담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6) 土肥昭夫,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歴史』, 김수진 역, 『日本基督教史』(서울: 기독교문사, 1991), 288.

7) 위의 책, 290; 김인수, 『韓國基督教會의 歴史』(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382-384.

둘째, 『宗教界諸名士講演集』은 1921년에 출간된 『百牧講演(第一集)』<sup>8)</sup>과 더불어 당대 설교집의 양축을 구형함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욱 신앙정체성을 각성하게 하는 시너지효과를 모색할 수 있었다. 『百牧講演(第一集)』은 대영성서공회(大英聖書公會)에서 근 30년 동안 시찰과 권서로 일하면서 한국기독교 문서선교에 크게 공헌한 양익환이 25편의 설교를 취합하여 간행한 문헌이다.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 글을 기고한 저자들은 전원 목회현장 혹은 기독교 기관에서 사역하던 당대 고명인사들이며 원고는 설교문 혹은 강론어체(語體)로 작성되었다. 특별히 이 강연집에는 “길선주, 김창준, 박동완, 박희도, 신석구, 이필주, 정춘수 등”<sup>9)</sup> 삼일독립운동 민족대표자들의 글 7편이 게재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정체성과 민족정신을 고양하려는 데 취지를 두었다. 한석원 목사가 1인 1편씩 총 20편의 원고를 단행본으로 집록했고, 242면 분량의 한 단 내려쓰기 체제로 인쇄되었다. 장로회 총회 제4대 총회장직에 봉직했던 김필수 목사는 『宗教界諸名士講演集』이 기독교문화를 확장할 수 있는 선교자료라는 점을 인식하여 “社會의 文化를 向上키 爲 爲야 蟹尾의 文을 不憚 恐고 敢히 拙詞를 書 恐노니 基督教 文化 普及에 萬有 一助가 되기를 顯望 恐노라”<sup>10)</sup>라고 포부를 밝혔다. 발행인은 양재기, 인쇄인은 김중환이고, 활문사서점(活文社書店)에서 발행되었으며, 대동인쇄주식회사(大東印刷株式會社)에서 인쇄했다. 책가(冊價)는 권당 팔십전(八拾錢)의 금액으로 책정되었다.

『宗教界諸名士講演集』을 분석한 논문으로 한경국의 “한국 최초의 절기 설교집 종교계 저명사 강연집에 대한 연구”(2018)가 있다. 이 연구논문에서는 ‘용어와 구성’, ‘설교연구’ 등을 중점 개괄하여 후속 연구가 용이하도록

8)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一集)』(京城: 博文書館, 1921), 1-252.

9)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목차를 볼 것.

10) 김필수, “序,”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1(“序”).

록 디딤돌을 놓았다.<sup>11)</sup> 박규환은 『宗教界諸名士講演集』을 비롯하여 『百牧講演(第一集)』, 『朝鮮의 講壇』, 『禧年記念說教集』 등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과 민족 및 국가 의식을 살펴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메시지의 추이를 소개했다.<sup>12)</sup> 특별히 『宗教界諸名士講演集』은 성화와 관련하여 일제 문화 정치에 맞서 초기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은 성화의 어떤 과업들을 중시했는지, 또한 이 과업들과 연관된 시의성 있는 담론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가가 두드러진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강연집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성화관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성화의식 고취’, ‘그리스도인이 정립해야 할 모범적 신자상 촉구’, ‘솔선해야 할 과제들 제시’ 등을 핵심주제들로 설정하여 고찰할 것이다. 이 강연집에 글을 기고한 저자들의 직책 및 소속 등은 이 강연집에 소개된 내용에 준하여 인명 뒤에 괄호로 처리하여 소개했다.

## II. 그리스도인의 성화의식 고취

그리스도인의 성화의식을 고취한 대표적인 설교문으로 원익상의 “사람의 本位”와 이기풍의 “新造의 人”을 들 수 있다. 이 두 편의 설교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령 내면에 성화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소신을 보여준 대표적인 글들이다. 원익상은 ‘구원·성화의 유기적 도식을 통해 성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상을, 이기풍은 심정설로서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 성화의 논지를 전개했다.

11) 한경국, “한국 최초의 절기 설교집 종교계 저명사 강연집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1(2018), 147-174.

12) 박규환, “일제강점기 개신교 설교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과 민족·국가의식,” 『한국기독교와 역사』 39(2013), 251-279.

## 1. 원익상의 '구원-성화'의 유기적 도식

원익상(1876-?, 春川南監理教會 牧師)은 “사람의 本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삶을 논하는 과정에서 성화의 삶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상으로서 성화를 숭선하는 신자상을 개진하여 신행일치(信行一致), 지행일치(知行一致)의 삶을 역설했다. 본래 성화와 선행은 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옛 생활에서의 타락한 습성이 악행으로 드러나듯이, 성화를 통해 촉진되고 강화되는 새로운 생활은 선행으로 외연(外延)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sup>13)</sup>

원익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사역을 금강산 절경에 비유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성화의 삶은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최고봉 백두산에 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주었다.<sup>14)</sup>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성화의 과업을 이분화하지 않고 한 지평 위에서 하나로 통합하고자 했다. 그의 설교문 제목이 보여주듯이 신자의 본위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가장 숭선해야 할 본분을 가리킨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위치적 또는 신분적 의(positional righteousness)로서의 칭의를 받은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층 시야를 외연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실천적 의(practical righteousness)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칭의가 선포되면 이후 실천적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불가분리의 유기적 상관관계가 확립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는 아무리 미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1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540.

14) 원익상, “사람의 本位,”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179.

께서 인정해주시며 고귀한 은혜를 베푸신다.<sup>15)</sup> 원익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을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깨닫지 못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하느님 아버지는 하느님의 子女라고 호십니다. 實로 이것이 偉大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子女가 어디 잇슴닛가? 엇든 곳에 하느님의 子女의 價値가 잇슴닛가? 사름의 눈으로 볼 썬에 어디를 둘러보든지 하느님의 子女다운 곳은 호나도 볼 수가 업는 것이 아님닛가?”<sup>16)</sup>라고 직고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한 지평에서 투사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래야만 참된 자녀로서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고 주장했다. 원익상은 하나님께서 죄인 죄수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무한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칭의 이후에 어떠한 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찰할 수 있도록 이 문장을 ‘~ 잇슴닛가?’, ‘~ 아님닛가?’ 등의 어투를 동원하여 수사의문문으로 기술했다.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동의적(同意的)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이라는 문구로 처리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평생 술선수범해야 할 성화의 과업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이기주의의 편협한 마음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자신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獨生子 예수를 이 世上에 보너신 하느님 아버지의 곱흔 사랑은 아모리 호여도 알지 못흐니다”<sup>17)</sup>라고 토설하여 하나님을 의퇴하지 않는 불신자나 다를 것이 없다고 단정했다. 이 문장에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1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II. 17. 9(812-813면).

16) 원익상, “사람의 本位,” 191.

17) 위의 글, 195.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조차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둘째, 이웃을 향해서는 충심을 다해 이타적 사랑을 베풀 것을 권면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해야만 예수님께서 속죄의 대의를 실천하셨듯이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서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입히거나 저축해둔 금전이라도 아낌없이 나눠줌으로써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이타의 사랑이라고 했다.<sup>18)</sup>

셋째,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본받아 거룩한 생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원익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성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의 의미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형상의 참된 가치를 심중에 아로새길 수 있다고 천명했다.<sup>19)</sup> 반틸(Cornelius Van Til)이 확증했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sup>20)</sup> 원익상은 당대의 부패한 시대상을 염두에 두어 “하느님의 사랑을 씨다른깨달은-연구자 주 信者는 만홀 것입니다. 그러하지마는 하느님의 압해서 참으로 씨긋하다는[깨끗하다는-연구자 주 信者는 몇 사람이 될는지요? 그것은 實노 어두운 밤에 별과 갯홀 줄로 압니다.”<sup>21)</sup>라고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성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드

18) 위의 글. 칼빈은 기독교인의 생활을 논하는 대목에서 자기부정과 관련하여 이 자세는 이웃을 향한 태도를 바르게 정립해주며 이웃을 올바르게 돕도록 인도하는 덕목이라고 했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III, 7, 4-5(693-696면).

19) 원익상, “사람의 本位,” 198.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능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에 의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마고테이의 추구는 구속에 대한 참된 인격적 지식이 전제된다. cf. 박형룡, 『敎義神學 救援論』(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340-341.

20) Cornelius Van Til, *The Defence of the Faith*(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13.

21) 원익상, “사람의 本位,” 198.

물다고 했다.

넷째, 원의상은 믿음과 행위가 부합하는 삶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이나 行實이 더러우며 그곳에 罪를 犯할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디로 보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子女라 하는 價値는 업서진 故로”<sup>22)</sup>라고 확언하여 마음과 행실이 한결같은 표리일치(表裏一致)의 삶을 숭선해야만 거룩한 신자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이 사고는 인격의 중심을 마음으로 보는 심정설과도 면밀하게 부합한다.

## 2. 이기풍의 심정설(心情說)로서의 회개

이기풍(1865-1942, 順天郡長老教會 牧師)이 “新造의 人”에서 말하는 신조의 사람이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며, 그의 성품을 본받으며, 진리의 말씀에 청종하며, 통회자복하는 인간상을 구현한 그리스도인이다.<sup>23)</sup> 이 고결한 성품들 중 그가 가장 역점을 두어 강조한 것은 참회하는 신자상이다. 이기풍은 이점을 숙고하여 신조의 사람을 논증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칼빈(John Calvin)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비록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선포하셨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인이라 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비록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원죄나 자범죄가 제거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죄악에 저항하여 지속적으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존재라고 했다.<sup>24)</sup> 이러한 관점은 루터(Martin Luther)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simul

22) 위의 글, 199.

23) 이기풍, “新造의 人,”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128, 130, 131.

2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III. 3. 10-11(602-603면).

justus et peccator)이라고 진술한, “본래적으로 항상 죄인이며, 그래서 본래적으로 항상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sup>25)</sup>라는 정언과 같은 궤적을 갖는다. 그런데 이기풍이 논한 회개와 관련하여 깊이 살펴보아야 할 논점이 있다. 그가 강조한 회개가 거창한 사안들이거나 심오한 수준의 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나 쉽사리 직면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소소한 사안들을 주목했다. 이는 그 누구든지 일상적인 생활에서 평범하게 체험할 수 있을 만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명백하게 짚어줌으로써 지극히 작은 일부터 회개를 훈련할 것을 권면하려는 의중을 담는다. 그 사례들로서 세례 요한이 가르침을 청한 유대인 무리에게 교훈할 때 정해진 세금 액수를 초과하여 거두고 횡령하는 행태, 집세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 군사들이 백성을 협박하여 착복하는 범죄 등 일상생활에서 만성화된 폐해들을 제시했다.<sup>26)</sup>

회개를 실천해야 할 성결한 인성이 담긴 중심좌소(中心座所)는 어느 곳인가? 이기풍은 그리스도인이 통회하고 깨끗한 성품을 각인(刻印)하여 저장할 수 있는 중심좌소는 ‘마음’이라고 확인한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 신조의 사람인가?’라고 독백형식으로 자신에게 질문한 후에 회개하여 마음의 자세가 변화된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자라고 화답했다. 또한 성령님께서 심령에 내주하셔서 마음이 정결하게 정화된 사람만이 신조의 경지에 도약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슬피 우실 것이라고 걱정을 토했다.<sup>27)</sup> 벌코프(Louis Berkhof)는, 종교의 좌소를 마음이라고 했으며 이는 단순하게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도덕적 삶의 중심을 가리킨다고 진술했

25) Martin Luther, *Lectures on Romans*, trans. Wilhelm Pauck(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124; Frederick E. Mayer, *Lutheran Theology*, 지원용 역, 『루터敎 神學』(서울: 권콜디아사, 1960), 117.

26) 이기풍, “新造의 人,” 125. cf. 누가복음 3:12-14.

27) 이기풍, “新造의 人,” 128, 133.

다.<sup>28)</sup> 칼빈이 언급했듯이 회개는 곧 마음의 할례이다.<sup>29)</sup> 또한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상과 삶을 주관하시는 성화사역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 성결한 내적 성품을 갖출 수 있다.<sup>30)</sup> 결국 마음은 본질적으로 인격의 삼요소 지성·감정·의지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중심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기풍이 논증한 심정설로서의 회개는 기독교 윤리학에서 중시하는 동기론적 윤리가 전제되어 있다. 동기론적 윤리는 ‘카르디아’(Καρδιά)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이 행위로 현상화하여 표출된다고 봄으로써 마음과 행위를 인과관계로 규정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카르디아)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sup>31)</sup>라고 명시하심으로써 심성과 행위를 일원적 인과관계로 엮어 가르치셨다.

구원의 논리적 서정에서 성화는 칭의에 뒤따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한 지평 위에 놓여 있다.<sup>32)</sup> 이기풍은 왜 칭의와 성화가 조화되지 못하는 모순이 나타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신조의 사람으로 중생하지 못하는 것은 단적으로 심성 내면에 회개를 이루지 못한 까닭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심정설로서의 회개’라는 개념과 직결된다. 따라서 인격의 중심좌소인 마음에 회개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신조의 인간이 될 수 없고, 그 결과 성화 역시 논할 수 없게 된다. 그는

28)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고영민 역, 『뽕콰組織神學: 序論』(서울: 기독교 문사, 1985), 180-181.

2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III. 3. (6598면).

30) 위의 책, III. 3. 14(607면).

31) 마가복음 7:20-23.

32) 정병식, “마르틴 루터와 존 웨슬리의 신학적 접점 연구-칭의와 성화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9(2018), 8.

회개의 고상한 산물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인식, 자기존중 심 정립, 신자들과의 형제애, 죄에 대한 혐오, 사후 내세를 지향하는 소망을 들었다.<sup>33)</sup>

### III. 그리스도인이 정립해야 할 모범적 신자상 촉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립해야 할 모범적 신자상으로서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 두드러진 관점들은 거시적인 틀에서 청지기 정신, 이타정신, 정의구현 정신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상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갖추어야 내면적 심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한다. 성화의 삶을 역설한 설교문들로 한석원의 “責任의 自覺”과 김창준의 “最大의 模範”은 청지기 정신을, 김필수의 “球上無比의 紀念”과 김창준의 “最大의 模範”은 이타정신을, 유경상의 “正義의 力”과 김관식의 “徹底의 愛”는 정의구현 정신을 천명했다.

#### 1. 청지기 정신 담론

##### 1) 한석원의 청지기로서의 ‘최선’의 책임 수행

한석원(1894-1987, 「青年」編輯人)의 설교문 “責任의 自覺”은 제목이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책임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는다. 그가 책임과 관련하여 구사한 단어들 중 삶의 현장을 개척할 과업을 짊어진 그리스도인이 다짐해야 할 최적의 용어는 ‘베스트’(最善, best)이다. 그는 책임을 자각할 것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確實히 하라 베스트(最善)를 다하라는 줄노 生覺을 줍니다.”<sup>34)</sup>라고

33) 이기풍, “新造의 人,” 128-129.

34) 한석원, “責任의 自覺,”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10.

각오를 다졌으며, 청지기 정신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이 ‘썰스트’를 반복하여 구사했다. 단적인 사례로, 교회에서 직원에 선출되거나 피선되었을 때 어떤 직무와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썰스트’를 다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혹여 직무나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자신이 할 일을 찾아 자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부응하여 전심으로 일하려는 자세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할 일이라고 권장했다.<sup>35)</sup>

한석원이 논한 청지기 직무는 그 자체에 높고 낮음이 없으며 어떤 지위에 속해있던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임을 주셨다는 소명의식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숙고해야 할 논점으로, 그의 논지에는 계급과 서열의식을 혁파하려는 열정이 농축되어 있다. 그는 청지기상을 논할 때 직책의 다양성을 수직적 관계로 보지 않고 오로지 최선을 다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직무상’의 속성인 것으로 파악했다. 주지하듯, 루터와 칼빈을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은 목회사역을 담당하는 성직자들의 사역이나 그리스도인이 지상에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직업군(職業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가르쳤고, 단지 은사의 다양성으로 인해 각자 다른 업적을 남길 뿐이라고 이해했다.<sup>36)</sup> 구한말 한국은 유교정신이 느슨해지면서 유도(儒道)의 관행과 전통이 강제성을 잃기는 했지만 사농공상 체계의 위계가 단시일에 혁파되었던 것은 아니며 이러한 동향은 왜정시대까지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구한말 곤당골교회에서 일어난, 신자들의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갈등을 꼽을 수 있다. 곤당골교회 담임 무어(Samuel F. Moore)에게서 세례를 받은 백정 출신 박성춘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이 교회에 출석했을 때 양반계층의 신자들 중 천출(賤出)과의 교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

35) 위의 글.

36) 한국일, “루터의 소명론에 대한 선교적 해석과 적용-선교적 그리스도인,” 『장신논단』 49/4(2017), 321.

기하고 상당수가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다.<sup>37)</sup> 이러한 시대상을 고려하면 한석원이 역설한 청지기 정신은 조직체 안에서의 구성원 서열과 계급체계를 타파하고 최선의 헌신 그 자체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석원은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사를 회상하며 “엇지튼지 責任을 지고 幹部에 드러가서 ㅼㅼㅼㅼ를 다한다 ㅎ지 아니하면 사람의 進步는 ㅼ우 보기 힘들 것입니다. 나는 어린 ㅼ에 學校의 敎師가 되엿든 것을 ㅎ버힙니다. 왜 그러나 ㅎ면 其 敎師가 되엿든 三年 間에 나는 크게 自己의 責任을 ㅎ닷고 發達이 되엿습니다. 더욱히 靑年時代에 敎役者가 된 것을 ㅎ버힙니다.”<sup>38)</sup>라고 고백했다. 그는 하나님의 숭고한 섭리에 순종하여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역자 혹은 목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의미심장한 훈련의 현장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후진들이 성실한 청지기들로 등용되어 부지런히 앞길을 개척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값진 인생을 누릴 것을 기원했다.

## 2) 김창준의 책임을 완수하는 청지기상

김창준(1889-1959, 美監理中央敎會 牧師)은 설교문 “最大의 模範”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구속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아 어떤 직분과 직분을 부여받았든지 성실한 자세로 책무를 완수하는 참신한 청지기정신을 갖추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루터의 소명의식에 관한 논증이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신자 각 사람에게 고유한 직분과 직무를 내려주셨다는 점에서 그 사역을 소명의식에 입각하여 받아들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보다 탁월한 것은 이 직분과 직무를

37) 이영식, “초기 한국장로교회와 백정선교,” 『역사신학논총』 27(2014), 127-130.

38) 한석원, “責任의 自覺,” 14.

친히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는 점에 있다.<sup>39)</sup> 김창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임하시기 전 성실하게 가정사를 돌보신 일과 이후 공생애에 임하셔서 3년 간 구속사역과 복음을 성취하신 성역을 단절시키지 않고 일맥선상에서 연계하여 통찰함으로써 모범적 청지기상을 관철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이 정신을 본받아야 하며 어떤 단체에 속하여 멤버십을 갖는 위원, 교회 주일학교 교장, 혹은 분반교사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청지기가 될 것을 당부했다. 설혹 자신이 직분자로 임명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 또한 공동체에 속한 귀한 지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협력하여 섬기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40)</sup>

김창준의 청지기상 담론과 연계하여 주목해야 할 점으로서, “委員이 되었으면 委員에 일 主日學校長으로 選舉되었으면 主日學校長의 責任 또 教師가 되었으면 教師 그 職分을 다할 것이오.”<sup>41)</sup>라고 교훈하여 각자의 다양한 직분들을 수직적 관계로서의 고하(高下)나 상하(上下)의 서열로 보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담당해야 할 직무의 속성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앞서 논한 한석원의 청지기 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 2. 김필수와 김창준의 이타정신 담론

### 1) 김필수의 사회 확산으로서의 성례적 이타정신

김필수(1872-1948, 朝鮮예수교長老會 牧師)는 설교문 “球上無比의 紀念”

39) 장기영, “구원 받은 신자는 창조세계를 선물로 받는다: 루터의 창조세계 긍정과 신자의 일상적 삶의 책임,” 『韓國教會史學會誌』 50(2018), 22.

40) 김창준, “最大의 模範,”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239.

41) 위의 글, “最大의 模範,” 239.

에서 성찬예식의 실천적인 의의를 그리스도인의 헌신적인 삶으로 이끌어 내어 적용했다. 이 점에서 이 논점을 ‘성례적 헌신’이라고 명명해도 좋을 것이다. 그가 논하는 헌신이란 삶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희생하는 삶을 자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는 “어디까지 好衣好食 하며 平安히 날을 보니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ㄱ호 큰 人格이 十字架 위에서 몸을 씻게 될 것 ㄱ호면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爲호야 몸을 쓰저되찢어도-연구자 주 關係가 업겠습니다. 마즐지라도 ㄱ호습니대 좋습니다-연구자 주. 목숨을 다호여야 ㄱ호겠습니다. 적드리도적 더라도-연구자 주 그리스도를 爲호야 ㅍ을 흘리며”<sup>42)</sup>라고 다짐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믿음으로 인한 환란과 핍박을 감수하는 의지력, 예수님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진액을 쏟아내는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로서의 험난한 길, 물질적 풍요와 안락을 멀리한 고결한 금욕정신을 실천할 것을 교훈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 사회에 침투하여 이타정신을 발휘할 것을 격려했다. 그는 “이 ㅍ과 눈물이 모히고서야 教會가 發達호 ㅍ 아니라 孤兒院이 設立이 되며 救貧院이 ㅍ기며(생기며-연구자 주 癩病院이 設立이 되야 到處에 慈善事業이 니러나게 될 것이라 ㅍ니다.”<sup>43)</sup>라고 하여 사회 현장에 적극 개입하여 자기희생을 실천함으로써 이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로, 1930년대 초엽 사회복음주의가 활성화되고 ‘Re-Thinking Missions’(선교의 再考)를 선전하는 진보사상이 세력을 확대해가자 장로교 보수진영에서는 전도와 구령사역이 지고의 명분이라고 선포하고 교단 차원에서 교회의 사회진출을 제한하는 전략을 추진했다.<sup>44)</sup> 춘원 이광수는 1910년

42) 김필수, “球上無比의 紀念,”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63-64.

43) 위의 글, “球上無比의 紀念,” 64.

44) cf. William Ernest Hocking, *Re-Thinking missions: a laymen's inquiry after one hun-*

대 말부터 교회의 사회진출이 축소되는 추이를 노심초사하며 주시하고 있었고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1917)을 통해 한국교회가 구령사역에만 집중할 뿐 사회현장에서 등을 돌린 채 “교회의 계급화, 교회지상주의, 교역자의 무지, 무속신앙 등”<sup>45)</sup> 불합리한 현상을 자초했다고 성토했다. 1920년대 일제 문화정치가 내준 틈새를 뚫고 잠입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사상이 기독교를 대체하여 새로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장담했던 것도 당시 무사 안일했던 기독교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sup>46)</sup> 이 당시 김필수는 YMCA 지도자로 사역하며 청년층을 양성했고 전도순회활동을 통해 금주금연·절제·물산장려운동 등 사회 계몽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 2) 김창준의 이타의 고난 감수

김창준은 설교문 “最大의 模範”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타의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응당 타인을 위해 겸허하게 고난도 자청하는 성숙한 경지에 도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루터가 자신의 ‘십자가의 신학’에서 천명했듯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충성스런 사제들로 거듭나야 한다.<sup>47)</sup> 김창준은 기복신앙을 추구하며 쾌락과 평안만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빠져러

*dred years*(New York: Harper & Brothers, 1932). cf. 안수강, “한치진의 『基督教人生觀』을 통해서 본 1930년대 한국교회상,” 『한국교회사학회지』 46(2017), 270;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7), 59-60.

45)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 『青春』 11(1917. 11), 76-83.

46) cf.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376-377.

47) 이재하, “루터의 《요한1서 주석》에 나타난 사랑의 신학,” 『韓國教會史學會誌』 15(2004), 219.

마음으로 질문했다. “누구든지 고통을 도아히지[좋아하지-연구자 주 안치 마는 樂으로 生覺하는 것입니다. 只今 이곳에 모힌 사람 중에 고통을 밧겠다는 이가 몇 분이나 되겠습닛가? 무엇보다도 즐기라고 生覺하는 이가 만흔 줄노 生覺을 힘니다.”<sup>48)</sup> 그는,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꾀박과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했다며 진정한 희생과 헌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했다. 그는 믿음의 선진들이 큰 고난을 인내하면서 선행을 숭선 여행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씨서 困難을 當흔 生活을 비헌배운-연구자 주 싸뎀”<sup>49)</sup>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준 ‘이타의 고난 감수’를 소개하여 그 행적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첫째, 대속사역을 위해 공생애 사역에 임하시고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마음판에 깊이 아로새길 것을 교훈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성역을 가리켜 “自己는 죽기까지 三年 동안 晝夜를 不係하며 즘무실 時間도 업고 잠수실 餘暇도 업슬 만침 盡力하신 것 (중략) 畢意 十字架 우에 손은 못에 박혀서 선디피[선지피-연구자 주가 흐르시며”<sup>50)</sup>라고 서술하여 주님의 고결한 사랑은 오직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이타적 사랑의 귀감이자 진수라고 고백했다.

둘째, 열두 사도들과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헌신을 체득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베드로」가 十字架 우에 가로 미달녀 죽은 것이나 『바울』이가 生命을 썩앗기까지 落心히지 안코”<sup>51)</sup> “그리스도의 弟子나 敎會의 넷날 交友 信者들을 보면 고통을 當히리라는 覺悟”<sup>52)</sup>라는 극적인 묘사들을 통하여 베드로가 감당한 순교자의 위상,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

48) 김창준, “最大의 模範,” 240.

49) 위의 글, 241.

50) 위의 글, 239.

51) 위의 글, 240-241.

52) 위의 글, 240.

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수고,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성역을 본받아 실천한 이타적 사랑이 현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초적 사표가 된다고 했다.

셋째, 김창준은 오늘날 이타적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본받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표상으로 삼아 초열지옥(焦熱地獄) 그린랜드와 혹한의 아이슬랜드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진출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일상의 영화를 뒤로 한 채 전장(戰場)에서 군사들을 치료하는 귀부인들의 헌신적인 고투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정신으로 무장하여 이타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sup>53)</sup>

넷째, 김창준은 계승과 전수의 원리를 통해 이타적 고난을 사회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는 고난의 구심점을 예수님의 공생애와 피로써 이루신 복음 성취에서 탐색했고, 그가 당하신 이타적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어야 한다는 프레임을 설정했다. 그가 논한 이타적 사랑은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사도들,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선교사들과 귀부인들, 나아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할 계승과 전수의 의미를 담는다.

### 3. 유경상과 김관식의 정의구현 정신 담론

#### 1) 유경상의 정의구현 논증

유경상(1886-?, 京城水標教南監理教會 牧師)은 구한말 부정부패와 험난한 정국을 경험했고, 경술국치와 삼일독립운동의 통탄을 절감했으며, 정의를 상실한 세계대전의 참혹한 역사를 거치면서 남달리 심성에 정의의

53) 위의 글.

윤리관을 확립했다. 그는 설교문 “正義의 力”을 통해 실천적 사안에 주안점을 두어 기독교 공동체 윤리로서 정의구현을 논한 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제시했다. 그는 공동체 윤리 논증에서 한 개인에게서 출발하여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정의가 온전하게 구현되기를 원했고, 이 지대한 과제를 성취하려면 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첫째, 유경상은 기독교 공동체 윤리로서의 정의구현을 주창했다. 기독교 공동체가 표명하는 값진 특징들 중 하나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독립된 개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존속한다는 사실이다.<sup>54)</sup>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의 ‘성도(聖徒)’라는 칭호가 바로 이 개념을 대변한다. 그가 유념한 정의의 개념은 그 대상에 있어 한 개인이나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족들, 사회공동체, 더 나아가 큰 공동체로서의 국민과 국가를 겨냥하여 총체적 범주에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sup>55)</sup> 그는 “그리스도교 敎理에는 今日 朝鮮人의게 要求되는 條理가 許多하여 그것을 充分히 解得한 則 理想의 國民도 될 것”<sup>56)</sup>이라고 염원했다.

둘째, 유경상은 정의구현을 실천하는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확산의 원리를 제시했다. 그는 정의를 구축해야 할 주체를 ‘개인’, ‘가정’, ‘국가’ 등 삼자(三者)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이 삼자는 정의를 주도해야 할 가장 대변적 주체들이다. 그는 확산의 원리를 적용하여 공동체 윤리를 논했다. 먼저 신자 각인이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개인이 변화함으로써 가정이 정의로우며, 가정들이 변화하여 의로운 국가를 이루고, 진일보 동양을 비롯하여 세계의 정의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7)</sup> 그에게 정의란 인생이

54) 최태연, “한국 유교와 기독교의 공동체 윤리,” 『기독교사회윤리』 6(2003), 196.

55) 유경상, “正義의 力,”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68, 74-75.

56) 유경상, “朝鮮半島와 그리스도敎의 使命,” 『新生活』 7(1922. 7), 105.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터전이자 최종 목표인 선(善)이다. 그는 산상보훈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승리하는 삶을 보장하실 것이라고 고백했다.<sup>58)</sup>

셋째, 유경상은 정의구현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최종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 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초부터 매일 아침마다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연합국이 독일에 승전하기를 기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소회했다. 주목할 점으로서,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이 단서는 불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있다고 확인했다.<sup>59)</sup> 그는 글을 마감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가 당부한 기도는 정의 인도(人道)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을 위한 간구, 불미스럽거나 부정한 삶을 피하기 위한 호소, 민족복음화, 조선강토에 주님의 통치와 의의 임재를 갈구할 것 등이다.<sup>60)</sup>

## 2) 김관식의 ‘공의-사랑’ 의 도식

김관식(1888-1948, 慶興郡長老教會 牧師)은 설교문 “徹底의 愛”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철저한 사랑은 ‘śle라인드 러액’(blind love) 즉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의-사랑’의 도식을 설정하여 사랑은 공의와 더불어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철저한 사랑은 공의를 전제하기에 유구한 생명력을 갖는다고 설파했다. 주님의 대속사역을 실현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전횡적 결단이 아니었으며 명백하게 공의와 사랑 양성에 단초를 둔다.<sup>61)</sup> 예수님께서서는 성부 하나님의 공의 만족을

57) 유경상, “正義의 力,” 68, 74-75.

58) 위의 글, 75.

59) 위의 글, 73-74.

60) 위의 글, 76.

위해 피 흘려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야만 하는 가혹한 희생을 담당하셔야 했다.<sup>62)</sup> 조직신학에서는 이 논점을 만족설의 개념으로 논증한다.<sup>63)</sup> 김관식은 사랑과 공의를 별개의 지평으로 나누지 않고 유기적인 맥락에서 파악했다. 그에 의하면, 공의를 저버린 사랑은 맹목적이며 왜곡된 사랑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가 지적하는 ‘썰라인드 러 옴’ 즉 맹목적 사랑이란, 예를 들어 자식이 잘못된 길로 탈선해도 한 핏줄 이기에 용납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정의와 평정심을 저버린 뒤틀려진 사랑 이다.<sup>64)</sup> 그는 공의의 속성을 갖춘 사랑이야말로 자식을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식으로 양육하는 진정한 사랑 이라고 했다. 그는 정도(正道)를 이탈하여 불법을 범한 자녀에 대해서는 책망, 활동 제한, 초달(楚撻) 등의 방편으로 적극 훈육해야 한다며 부모의 회초리로 엄격하게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던 자신의 유소년 시절을 회고 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책망이 철저한 사랑의 발로였기에 삼 십년이 지나 장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초달을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상 기했다.<sup>65)</sup>

이렇듯 김관식은, 사랑과 공의 양 요소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사랑이 공의의 속성을 동반할 때 맹목적 사랑을 극복할 수 있고 진정한 가치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철저한 사랑이며 이 사랑을 삶속에서 구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사랑을 빙자하여 공의를 저버림으로써 사랑의 가치가 절

61) 박형룡, 『教義神學 基督論』(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309.

6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II, 15. 6(502면); Cornelius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17.

63) cf.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375-373.

64) 김관식, “徹底의 愛,”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154.

65) 위의 글, 154-155.

하되고 본의가 왜곡되는 현상을 우려하여 공의와 사랑의 유기성을 논증했다. 그는 이 사랑을 민족에 실천에 적용하여 “自己的 生命을 扨 番 바리면 그것 뿐이지마는 그 生命을 바릴 覺悟를 가지고 우리의 同族을 爲 扨야 나의 時間 나의 財産 扨든 扨에는 나의 名譽까지 다 扨치겟다는 態度가 잇스며 覺悟가 잇기만 扨면 扨는님 아버지는 우리의 스랑이 徹底扨 스랑으로 扨어가는 것을 아실 扨입니다.”<sup>66)</sup>라고 고백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애를 실천할 것을 호소했다.

#### IV. 솔선해야 할 과제들 제시

본 논문 제3장에서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립해야 할 모범적 신자상으로서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 부각된 청지기 정신, 이타정신, 정의구현 등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러한 신자상은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위적 성화를 실천하기 위해 갖추어야 내적 심성을 가리킨다면, 본 4장에서 다룬 솔선해야 할 과제 담론은 실천적인 사안들에 해당된다. 성화의 실천적 삶을 고취한 설교문들로서 강규찬은 “愛의 讚頌”에서 맘몬이즘을, 강두송은 “婦人問題”에서 성적 타락과 퇴폐문화를, 박동완은 “至誠一貫”에서 주초문제를 다루었다.

##### 1. 강규찬의 맘몬이즘(mammonism) 타파 담론

신약성경에서 ‘욕심’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용어로서 가장 빈번하게 기술된 헬리어 ‘에피쉴미아’(ἐπιθυμία, 약 1:15)가 있다. 전치사 ‘에피’(ἐπι)는 일정한 한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전치사와 합성된 에피쉴미아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바란다는 의미를 함축하며 ‘탐

66) 위의 글, 156.

욕'(cupidity)으로 정의된다.<sup>67)</sup> 강규찬은 설교문 “愛의 讚頌”에서 본능적으로 발산되는 인간의 무한한 욕심을 논증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는 사랑을 논함에 있어 물질문제가 개입되는 경우 인격적인 사랑을 터득하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문제는 탈속과 자기부인이라는 경건성과 금욕적 가르침에 직결된다. 그는 돈과 명예, 지위와 부귀를 탐내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이 장애요인들을 일소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심중에 모실 수 있다고 피력했다.<sup>68)</sup> 사랑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을 가르치는 계명의 실천 강령 또한 외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규정하는 윤리로서의 하나님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면 논리적으로 수평적 관계를 규정짓는 윤리로서의 이웃사랑 역시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수평적 관계를 언급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마 22:39)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수직적 관계를 전제하셨다.

강규찬(1874-1945, 平壤山亭峴長老教會 牧師)은 금전, 명예, 지위에 집착하는 자세와 참사랑을 실천하려는 태도를 극명하게 양극화하여 대립시켰다. 그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때를 가리켜 “사람이 꿈궤환꿈궤같은 연구자 주 世上을 버서나서 富貴도 地位도 名譽도 무엇이든지 自己 只음의 煩惱함이 업서지는 씨”<sup>69)</sup>라고 했다. 그가 진실한 사랑과 물질을 추구하는 mammon이즘을 상호 대척점에 둔 것은 사랑과 물질이 피차 교섭될 수 없는 속성을 지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질은 인간이 하나님으로 여길 만큼 본질적 결속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금전은 영혼과 삶속에 하나님을 대신

67) William Greenfield, The Greek-English Lexicon to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70. ‘ἐπιθυμία’ 항목.

68) 강규찬, “愛의 讚頌,”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229.

69) 위의 글, 229.

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갖춘 매력적인 대상이기도 하다.<sup>70)</sup> 강규찬의 사고는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sup>71)</sup>라고 훈계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선상에 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 사람이 보물을 추구할 때 필경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귀결을 의미한다고 주석했다. 이에 앞서 6장 21절,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물을 지상에 쌓는 자의 비애를 가리킨다고 했다.<sup>72)</sup>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기독교윤리학적 입장에서 부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그는, 물질적 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며, 하나님과 이웃을 소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경고했다.<sup>73)</sup>

## 2. 강두송의 성적 타락과 퇴폐문화 일소 담론

선교사 아펜젤러는 내한 2년 후인 1887년 4월 27일자 일기에 한국의 축첩문화를 소개하면서, 평안감사 남정철의 휘하 장수로부터 절망적인 너스레를 들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조선의 양반가문은 본처 이외에도 축첩관행에 의거하여 8명의 애첩을 들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첩에 대해 말할 때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마치 동물과 같다.”<sup>74)</sup>

70) 이재명, “경제·돈과 사람,” 김형민 외, 『가치가 이끄는 삶』(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3), 198.

71) 마태복음 6장 24절.

72) John Calvin, *Joh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Vol.1)*, trans. A. W. Morrison(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215, 218.

73) William Barclay, *Ethics in a Permissive Society*, 강형길 역, 『기독교사회윤리』(서울: 보이스사, 1988), 214.



의 성적 일탈을 자책하고 여성들을 존중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폐륜 행위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희망했다는 점에서 그의 내면에 담긴 진심을 읽어야 한다.<sup>78)</sup>

강두송의 설교문 “婦人問題”가 발표된 12년 후의 통계 수치로 1934년 7월 9일에 보도된 「東亞日報」 기사에 따르면 “全鮮을 通하여 女給 受給을 받은 青樓의 女性의 數는 一〇六八八人”이라 했고 분야별로는 “一, 藝妓 四六二〇人 二, 娼妓 二五六一人 三, 酒婦 一四三八人 四, 女給 二四八六人 全鮮의 樓數는 四八五八〇戶이다. 一, 料理屋 一八六四戶 二, 藝妓置屋 二五三戶 三, 娼樓屋 四七七戶 四, 酒店 四五六六戶 五, 카페 及 卍 四二〇戶 一〇六八八人”<sup>79)</sup>으로 집계되었으며 유흥 및 화류계열에 몸담은 어린 여성들이 12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보도되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질적 악습이 팽배했던 배경에는 일제의 공창제도(公娼制度)제도가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을 지나쳐보아서는 안 된다. 일제는 젊은 한국인들의 정기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의 열망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공창제도를 장려했으며 문화정치 시기에 호주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장로교, 기독교청년회 등과 제휴하여 폐창운동(廢娼運動)을 전개한 바 있다.<sup>80)</sup> 강두송은 남성들과 여성들의 동등한 인권을 주장했고 성적 타락을 고질병으로 인식하여 척결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특별히 여성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의미 있는 인생을 개척하려면 스스로 풍기가 문란한 성적 타락과 퇴폐문화부터 척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78) 강두송, “婦人問題,” 52.

79) 「東亞日報」, 1934년 7월 9일, 제1면; 김진홍, “行實은 各人の 心像을 보이는 거울,” 『계자씨』 3/10(1934), 7.

80) 김남식, 『한국기독교연려운동사』(한국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 1979), 140.

### 3. 박동완의 주초(酒草)문제 담론

주초문제를 일소할 것을 주장하여 활발하게 계몽을 전개한 목회자로 장대현교회의 길선주 목사를 들 수 있다. 그는 『懈惰論』(1904)과 『만스성취』(1916)에서 주초의 폐단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담배는 나태함의 상징이자 생명을 빼앗는 독초이며, 뇌수에 뿌리를 내려 정신상태를 혼란스럽게 하고 경계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했다. 술 역시 지상에서의 ‘성취국’을 잊게 하고 멸망을 초래하는 독소라고 경계했다.<sup>81)</sup> 이 문제는 1907년 『예수교신보』에서도 가정학 분야 칼럼에 기사화하여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담배의 해독에 대해서는 “뇌에 드러가면 그 성질이 총 신경을 격동하여 정신을 어즈럽게 하여”,<sup>82)</sup> 술의 폐해에 대해서는 “근육을 손상케 하여 활동하는 강력을 감하게 하는 거시오 (중략) 총 신경을 격동하여 마시는 성질을 권하니”<sup>83)</sup> 등의 문구를 접할 수 있다. 『百牧講演(第一集)』에 글을 발표한 신준려는 한국인들의 흡연문제를 고질적으로 만연된 병폐라고 인식하여 “他人들 볼 때에 「아- 예수教人도 吸煙 煙데! 그래도 教人이라고 外人이 왜 이렇게 말을 흡니가? 담비 먹는 거시 關係가 업스면 더들이 말할 때에 예수教人도라고 하는 「도」字를 왜 붓쳐서 誦을 하나요?”<sup>84)</sup>라고 힐책하여 영성과 신앙심을 무너뜨리는 병폐로 단정했다.

박동완(1885-1941, 「基督申報」主筆)은 설교문 “至誠一貫”에서 자신은 “나면서부터 只수까지 술과 담비는 입에 더여보지도 못호故로 (중략) 나는 나면서부터 禁酒禁煙家입니다.”<sup>85)</sup>라고 간증했다. 그는 1920년대 초엽

81) 길선주, 『懈惰論』(京城: 大韓聖敎書會, 1904), 6, 8-9, 13; 길선주, 『만스성취』(平壤: 光文社, 1916), 7-8, 23-24.

82) “가정학, 담비와 아편,” 『예수교신보』 1907년 12월 11일자.

83) “가정학, 데 이질 술,” 『예수교신보』 1907년 11월 27일자.

84) 신준려, “自省을 促함,”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一集)』, 225-226.

85) 박동완, “至誠一貫,”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118.

가톨릭에서 금주금연을 행하는 개신교의 미덕을 칭송하기보다는 오히려 혐오했던 사례를 들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당시 가톨릭 측에서는 개신교인들이 주초를 멀리하고 잔치에도 출입하지 않으며 불신자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불손한 자세를 취한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박동완은 기독교인들 중 최소한 70퍼센트 이상이 주초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가톨릭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교인들 모두를 비웃는 악의적인 태도라고 일침을 놓았다.<sup>86)</sup> 또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도 관료들이나 기업가들을 대할 때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우려하여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다가 노골적으로 강요를 받을 때는 슬쩍 자리를 피하는 위선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sup>87)</sup> 그는 “손톱으로 썰너도 썸적도 아니홀 사름이라 아모 것도 變호ᄃᆡ 것이 업다. 예수고 무엇이고! 누가 아나호고 咄呢를 힘니다.”<sup>88)</sup>라는 언사와 모욕까지도 참아야 하며 의연하게 그리스도인 본연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지 한결같이 신자다운 면모와 경건한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 대목이다.

부연하여, 박동완은 각별히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혹독하게 경험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한 관리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모든 하객이 그 관리의 건강을 기원하며 술잔을 들어 건배를 외쳤지만 자신은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 빈 컵을 들었다고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리의 아내가 기지를 발휘하여 사이다를 대접하여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는 함께 잔치에 참석했던 동료 신자에게서 실로 도리를 모르는 자라는 굴욕을 당해야만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자질하여 흉을 보는 바람에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오히려 “나는 그것을 두고 나

86) 위의 글, 113-114.

87) 위의 글, 114.

88) 위의 글.

의 뜻을 일우웠다 ㅎ는 生覺으로 깃버 ㅎ엿습니다.”<sup>89)</sup>라고 호언하여 당당하게 기독교인으로서 긍지를 표명했다.

##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성화관에 대해 고찰했으며 별도의 장들을 편성하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식 고취’, ‘그리스도인이 정립해야 할 모범적 신자상 촉구’, ‘술선해야 할 과제들 제시’ 등을 분석했다. 큰 틀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식 고취’에서는 성화론의 취지를, ‘그리스도인이 정립해야 할 모범적 신자상 촉구’에서는 내면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성을, ‘술선해야 할 과제들 제시’에서는 실천적 과업들을 다루어 이론과 실재를 통합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인 성화의식 고취와 관련하여 원익상은 ‘구원-성화’의 유기적 도식을, 이기풍은 심정설로서의 회개에 주안점을 두었다. 원익상은 “사람의 本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삶을 논하는 과정에서 성화의 삶을 제시했으며 이기주의의 편협한 마음을 극복할 것, 충심을 다해 이타적 사랑을 베풀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생을 추구할 것을 피력했다. 이기풍은 “新造의 人”에서 통회자복하는 인간상을 강조했으며 그리스도인이 참회하고 깨끗한 성품을 각인할 수 있는 중심좌소를 마음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동기론적 윤리관을 부각시켜 마음과 행위를 인과관계로 조명했으며 회개의 산물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인식, 자기존중심 정립, 신자들과의 형제애, 죄에 대한 혐오, 사후 내세를 지향하는 소망을 들었다.

89) 위의 글, 118-119.

둘째,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신자상을 촉구한 논점들은 청지기 정신, 이타정신, 정의구현 정신 등에서 두드러진다. 한석원은 “責任의 自覺”에서 청지기로서의 책임 수행을 역설했다. 그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던지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준은 “最大의 模範”을 통해 책임을 완수하는 청지기상을 논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될 것을 당부했다. 김필수는 “球上無比의 紀念”에서 성례적 헌신의 관점을 도출하여 사회 확산으로서의 이타정신을 논했으며 사회에 침투하여 이 정신을 실천할 것을 격려했다. 김창준은 기복신앙을 극복하고 주님의 고통을 되새길 것, 사도들과 초기 교회 신자들의 헌신을 배울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 헌신을 따를 것, 이타적 고난을 계승할 것을 교훈했다. 유경상은 “正義의 力”에서 기독교 공동체 윤리로서의 정의구현, 정의구현 확장, 간절한 기도를 논했다. 김관식은 “徹底의 愛”에서 ‘공의-사랑’의 도식을 설정함으로써 사랑과 공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공의의 속성을 동반할 때 맹목적 사랑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진가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솔선해야 할 시급한 사안들로 제시된 mammon 이즘, 성적 타락과 퇴폐문화, 주초문제 등을 다루었다. 강규찬은 “愛의 讚頌”에서 금전, 명예, 지위에 집착하는 자세와 사랑을 실천하려는 태도를 극명하게 양극화하여 대립시킴으로써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신자의 본분을 강조했다. 강두송은 “婦人問題”에서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논하면서 성적 타락과 퇴폐문화를 근절함으로써 여권신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녀의 동등한 인권을 주장했고 성적 부패를 고질병이라고 진단했다. 박동완은 “至誠一貫”에서 1920년대 초엽 가톨릭에서 금주금연을 행하는 개신교의 미덕을 칭송하기보다는 도리어 비난했던 불미스런 사례를 지적

하여 금주금연을 논증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솔선함으로써 신자다운 면모와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세기 전에 집필된 『宗教界諸名士講演集』은 암묵적으로 일제의 세뇌 공작의 일환인 문화정치에 저항하여 기독교의 신앙 정체성과 성결한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의도로 출간되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과 관련하여 성화의식을 고취했고 이를 기반으로 청지기 정신, 이타정신, 정의구현 정신을 구현하도록 독려했다.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는 맘몬이즘 타파, 성적 타락과 퇴폐문화 일소, 금주금연의 메시지를 담아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 고결한 메시지는 게쉬히테(Geschichte)<sup>90)</sup> 차원에서 현하 한국기독교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심성을 피폐하게 하는 일제의 시대적 사조와 위기현상들을 극복하고 오직 신행일치를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신자상을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코로나(COVID 19) 여파로 예배, 교육, 선교, 교제, 섬김 등 모든 영역이 온라인에 지배되고 영성이 둔화되면서 성화훈련은 퇴조해가고 있다. “현 한국교회는 기독교윤리의식과 성화사역이 심하게 퇴조되어 세상을 개혁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비난을 받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sup>91)</sup>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영적 과제는 심령의 개

90) ‘히스토리에는 과거의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파악하는 객관적 역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게쉬히테’는 히스토리를 적용적인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분석하여 오늘날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의미를 담는다. 호리교메 요조(堀米庸三)가 천명했듯이 역사가 지닌 히스토리에로서의 객관성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라는 실존적 의미를 투사한 게쉬히테로서의 주관성을 담을 때 비로소 참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 cf. 堀米庸三, 『歴史をみる眼』, 박시중 역, 『역사를 보는 눈』(서울: 개마고원, 2008), 87-95.

91) 안수강, “이기풍(李基豊) 목사의 성화담론 분석-그의 “新造의 人”(1922)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5(2020), 173.

혁이 동반된 실천적 성화의 과업이다.

둘째, 한국교회가 시류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개혁과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책무를 인식하게 해준다. 역사적으로 과거 한국교회의 강인한 힘은 항상 개혁사역을 추진했으며 한결같이 사회변혁을 주도했다는 데 있다. 이 성역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써 수행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는 점을 통감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층 기독교윤리의식을 선도해야 하고 고취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삶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도(正道)를 실천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성화의 과업에 적극 솔선하도록 인도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앙정체성과 거룩성을 구현하기 위해 솔선여행(率先厲行)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맘몬이즘을 극복하는 결단과 실천이라고 본다. 강규찬이 지적한 금전, 명예, 지위에 집착하는 타락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자행되는 만성적 질환이다.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

## 참고문헌

-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7.
- 강규찬. “愛의 讚頌.”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217-229.
- 강두승. “婦人問題.”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43-57.
- 길선주. 『만수성취』. 平壤: 光文社, 1916.
- \_\_\_\_\_. 『懈惰論』. 京城: 大韓聖教書會, 1904.
- 길진경. 『靈溪 吉善宙』. 서울: 종로서적, 1980.
- 김남식. 『한국기독교먼러운동사』. 한국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 1979.
- 김인수. 『韓國基督敎會의 歷史』.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 김진홍. “行實은 各人の 心像을 보이는 거울.” 『계자씨』 3/10(1934), 5-7.
- 김창준. “最大의 模範.”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230-242.
- 김필수. “序.”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1(“序”).
- \_\_\_\_\_. “球上無比의 紀念.”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58-66.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박규환. “일제강점기 개신교 설교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과 민족·국가의식.” 『한국기독교와 역사』 39(2013), 251-279.
- 박동완. “至誠一貫.”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217-229.
- 박응규. “교회와 국가관계를 중심으로 본 3·1운동과 한국교회.” 『생명과말씀』 23(2019), 153-195.
- 박형룡. 『敎義神學 救援論』.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 \_\_\_\_\_. 『敎義神學 基督論』.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 신준려. “自省을 促함.”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一集)』. 京城: 博文書館, 1921, 215-234.

- 안수강. “이기풍(李基豊) 목사의 성화담론 분석-그의 “新造의 人”(1922)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5(2020), 147-178.
- \_\_\_\_\_. “이필주(李弼柱)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지식’ 논증 분석: 그의 ‘참으로 자신을 알나(1922)를 중심으로.” 『생명과말씀』 25(2019), 47-82.
- \_\_\_\_\_. “한치진의 『基督教人生觀』을 통해서 본 1930년대 한국교회상.” 『한국교회사학회지』 46(2017), 241-285.
-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一集)』. 京城: 博文書館, 1921.
- 원익상. “사람의 本位.”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187-199.
- 유경상. “正義의 力.”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67-76.
- \_\_\_\_\_. “朝鮮半島와 그리스도敎의 使命.” 『新生活』 7(1922. 7), 99-106.
-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敎會의 欠點.” 『青春』 11(1917. 11), 76-83.
- 이기풍. “新造의 人.”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123-134.
- 이영식. “초기 한국장로교회와 백정선교.” 『역사신학논총』 27(2014), 118-147.
- 이영현.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91.
- 이재명. “경제-돈과 사람.” 김형민 외. 『가치가 이끄는 삶』.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3, 192-221.
- 이재하. “루터의 《요한서 주석》에 나타난 사랑의 신학.” 『韓國敎會史學會誌』 15(2004), 201-232.
- 장기영. “구원 받은 신자는 창조세계를 선물로 받는다: 루터의 창조세계 긍정과 신자의 일상적 삶의 책임.” 『韓國敎會史學會誌』 50(2018), 7-42.
- 정병식. “마르틴 루터와 존 웨슬리의 신학적 접점 연구-칭의와 성화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9(2018), 7-43.
- 조용훈. 『사회이슈와 한국교회』. 성남: 북코리아, 2014.
- 최태연. “한국 유교와 기독교의 공동체 윤리.” 『기독교사회윤리』 6(2003), 177-204.
- 한경국. “한국 최초의 절기 설교집 종교계 저명사 강연집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1(2018), 147-174.
- 한국일. “루터의 소명론에 대한 선교적 해석과 적용-선교적 그리스도인.” 『장신논

단 49/4(2017), 309-336.

한석원. “責任의 自覺.”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1-14.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堀米庸三. 『歴史をみる眼』. 박시중 역. 『역사를 보는 눈』. 서울: 개마고원, 2008.

土肥昭夫.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歴史』. 김수진 역. 『日本基督教史』. 서울: 기독교문사, 1991.

“가정학, 담비와 아편.” 『예수교신보』 1907년 12월 11일자.

“가정학, 데 이절 술.” 『예수교신보』 1907년 11월 27일자.

Appenzeller, Henry G. *Bring to the Light and Liberty*. 노종해 역. 『자유와 빛을 주소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Barclay, William. *Ethics in a Permissive Society*. 강형길 역. 『기독교윤리』. 서울: 보이스사, 1988.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_\_\_\_\_. *Systematic Theology*. 고영민 역. 『뽕콧組織神學: 序論』. 서울: 기독교문사, 1985.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_\_\_\_\_. *Joh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Vol.1)*. trans. A. W. Morris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Greenfield, William. *The Greek-English Lexicon to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Hocking, William Ernest. *Re-Thinking missions: a laymen's inquiry after one hundred year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2.

Luther, Martin. *Lectures on Romans*, trans. Wilhelm Pauck.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Mayer, Frederick E. *Lutheran Theology*. 지원용 역. 『루터教 神學』. 서울: 컨콜디아사, 1960.

Van Til, Cornelius, *The Defence of the Faith*,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논문투고일: 2022년 01월 25일

심사개시일: 2022년 0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04월 01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일제 문화정치 초엽 1922년에 발행된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성화관(聖化觀)을 분석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성화는 영혼 안에서의 신적인 사역이며, 이 사역에 의하여 성스러운 성품이 강화되고 거룩한 훈련을 촉진한다. 본 연구자는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성화관에 부각된 핵심적인 담론을 다음과 같이 숙고했다. 첫째, 원익상의 “사람의 本位”와 이기풍의 “新造의 人” 등을 중심으로 구원과 성화의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살폈고, 심정설(心情說)과 동기론적 윤리관에 단초를 둔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다루었다. 둘째, 한석원의 “責任의 自覺”, 김창준의 “最大의 模範”, 김필수의 “球上無比의 紀念”, 유경상의 “正義의 力” 등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정신, 이웃을 향한 이타적 사랑, 정의구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했다. 셋째, 논지의 주안점을 기독교 성화의 실천적 함의에 두어 맘몬이즘 타파, 성적 타락과 퇴폐문화 일소, 금주금연에 대하여 살폈으며 강규찬의 “愛의 讚頌”, 강두송의 “婦人問題”, 박동완의 “至誠一貫”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주제어:** 성화, 거룩한 삶, 『宗教界諸名士講演集』, 모범적 그리스도인, 기독교윤리

---

